



3

학교도서관 운영의 중심 방향

- 학습이나 문화예술이나 -

이 덕 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smjesus@chol.com

목차

1. 최근 학교도서관의 흐름
 - 1.1 학교도서관 운영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들 도입하여 확대하기
 - 1.2 독서활동상황기록(독서이력철) 도입과 학습 독서
2. 문화예술적인 도서관 운영의 배경 - 학교도서관의 본질회복, 기능 정상화 전략이다
3. 문화예술적인 도서관운영의 필요성
4.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사례
5. 송곡여자고 도서관 리모델링에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마당
 - 5.1 도서관 속 미술관
 - 5.2 음악회가 있는 도서관
 - 5.3 도서관 학생들의 북아트와 그림책슬라이드 공연
6.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 6.1 도서관에서 무슨 문화예술 교육까지?
 - 6.2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1. 최근 학교도서관의 흐름

1.1 학교도서관 운영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들 도입하여 확대하기

2007년 1월 16일(화)부터 1월 18일(목)까지 강원도 원주 상지대학교에서는 전교조 학교도서관분과 참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가 2박3일간 진행되었다. 지난 1년간 각급학교에서 도서관담당교사 또는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열심히 운영하고 실천한 사례들 가운데 각 지회 지부에서 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들을 모아 전국에서 모인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동지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는 무척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학교의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교사나 사서 학생들의 노력을 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에 학교도서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자리이다.

올해로 6년째 6번째 발표회를 갖는 자리였다. 올해에도 약 100명의 교사가 참석을 하여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보자.

주제 1. 학교도서관과 문화예술

- 참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어가요, 우리두리(이미숙)
- 학교도서관과 미술(최은진)
- 미술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연구(정재연)
- 영상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교육(성희옥)
- 학교도서관과 음악(한가람)
-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전시를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이덕주)
- 저자와의 대화 “박상률”

주제 2. 학교도서관에서 책 읽기

-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김을용)
- 아이들 꿈이 영그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읽기(최현숙)
- 학교도서관에서 세상을 논하고 나를 슬하라(이효재)
- 책놀이마당과 함께 한 도서축제(박정해)

주제 3. 사람, 그리고 학교도서관

- 4학년 사회, 과학과 정보활용교육 지도안 및 관련자료 제작(이선영)

- 중2 사회과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한 교구상자 제작(최은주)
- 집단 읽기의 위대한 힘(서현숙)
- 책 놀이 체험한마당(박혜경)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길 찾기(한명숙)
- 경남지역 학교도서관 모임 사례(조의래)

주제 4. 권장도서 목록이 가지는 의미와 대안

- 중등학교 권장도서(송승훈)

부록 1. 지부발표 자료

- 초보 사서교사의 한 해 살이(고민선)
- 문학 기행(캠프) 되돌아보기(김영경)
- 그림책 바로 읽기(조의래)

위 발표자료들의 차례를 보면 <학교도서관과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말고도 다른 주제에서도 사실상 도서관 문화체험활동을 위주로 다룬 자료들이 많다. 책놀이마당과 함께 한 도서축제(박정해), 책 놀이 체험한마당(박혜경), 문학기행(캠프)되돌아보기(김영경)과 같이 제목에서 축제 문화 놀이를 드러내고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주제2의 학교도서관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김용웅), 아이들 꿈이 영그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읽기(최현숙), 주제3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길 찾기(한명숙) 발표들도 내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놀이 활동을 다루고 있다.

한편 학교도서관문화운동 네트워크의 사서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제 : 2007년 학교도서관 풍성하게 이끌기

시간/날짜	1월24일(수)	1월25일(목)	1월26일(금)
10:00~ 17:00	다양한 내용의 독서교실 기획하기 진행 : 학교도서관문화살림	창조적인 도서관 놀이 진행 : 고무신학교	책축제 준비에서 성공적인 실행까지 진행 : 열린사회복지시민회
12:00~ 13:00	점심	점심	점심
13:10~ 15:00	워크샵1	워크샵1	워크샵1
15:10~ 17:00	워크샵2	워크샵2	워크샵2

프로그램의 운영목표에 대해서도

<목 표>

1. 독서교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총체적인 문화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 창조적인 놀이개발로 독서활동 활성화를 돕는다.
3. 책축제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로 설정되어 있고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조기에 연수신청이 마감되었고 실제 책을 주제로 한 놀이를 기획하고 실제 체험하는 연수로 진행되었다.

그런가하면 2007년 올해 여름에 예정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의 연수 프로그램에도 도서관에 문화적인 요소 놀이 축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여태까지 학교도서관 운영 연수가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도서관협력수업 수준을 넘어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진지하게 개척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여름 직무연수 계획>

일시 : 2007년 8월 6일-9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영역	과목	강 의 내 용	시수	강사
학교도서관 만나기	학교도서관 진단하기	학교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2시간	
		학교도서관이 학교 문화를 바꾼 사례	2시간	
	학교도서관 관계맺기	사람, 책, 도서관과 관계 맺기 워크샵	3시간	
학교도서관 운영하기	학교도서관 운영	처음 학교 도서관 만나기 / 학교 도서관 운영 한해살이	3시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초등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 중등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2시간	
	공연 및 발표	그림자극, 영상 동화로 마음열기	2시간	
	저자 강연	저자와의 만남과 대화	2시간	
책과 놀이	책과 놀이 워크샵	책과 놀이 워크샵	3시간	
	문화 기행	문화 기행 - 다산과 수원 화성	3시간	
	도서 축제	도서 축제 기획에서 실행까지	3시간	
학교도서관에서 희망 만들기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 100문 100답	2시간	
	연대와 희망 찾기	모듬별 활동 결과물 및 개인별 소감 발표	3시간	
합계		교과 과정 별 총 이수 시간	30시간	

1.2 독서활동상황기록(독서이력철) 도입과 학습독서

지난 2007년 2월 28일 그동안 독서운동 모임이나 독서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와 이견이 많았던 독서이력철이 1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앞으로 학교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고 지속적인 찬반 논란을 불러오리라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2007.2.28)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① 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 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신설)

부칙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07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적용하고, 200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까지 적용하고, 2009학년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학생부에 독서활동 기록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수정>

2007-03-29 오후 1:48:53 게재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과 개인 교외체험학습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8학년도 입시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또 독서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해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별활동상황란에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교외 체험학습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지침은 2007학년도에는 초등 1·2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학년에, 2008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 중학 2학년, 고교 2학년에 각각 적용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고교생 독서활동 학생부에 기록 - 道교육청, 올해 고1부터 실시키로 조선일보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입력 : 2007.03.25 23:48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각 대학 입사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부터가 대상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3일 “독서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고, 논술 능력과 진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고교 1학년생들부터 학기별 독서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1차 적으로 학생들이 개인별 독서기록카드를 작성하면 교과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이를 수시로 점검해 ‘독서보조기록부’를 작성해 학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독서결과는 2010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에 비교과영역 참고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독서결과 기록 요령 등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난 학교도서관에 이렇게 문화를 중시하는 흐름과 교육을 중시하는 흐름이 최근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풍성히 하고 강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논거는 본 글의 범위에서 적절하지 않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 도서관의 문화예술 서비스 증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문화예술적인 도서관 운영의 배경 - 학교도서관의 본질회복, 기능 정상화 전략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밀받침해왔다. 그중에서도 1980년대 이후 아이들의 창의성을 무너뜨리고 반감금형태로 잡아두는 방과후 자율학습의 공간으로 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 이후 학교도서관의 지평이 독서실을 넘어 도서대여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공간으로, 교사들의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정상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 접근방식이 독서교육을 밀받침 하는 환경으로 학생들의 대입논술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 머문다면 그동안 학교도서관이 입시교육의 시너로 왜곡되었던 모습과 본질상 같은 맥락이다.

도서관은 인류 역사 이래 당 시대의 문화를 수집, 분석, 보전하여 당대와 후대의 문화창조에 결정적 공헌을 해온 기관이다. 도서관에 보전된 문화유산의 지원을 받아 창조된 그 문화를 다시 차곡차곡 보관하여 널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과 문화유산의 창조적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만은 이런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사라진 채 넓은 열람실 공간은 상급학교와 취업을 향한 지식 습득만을 위한 공부방 공간으로, 책과 자료를 두는 공간은 귀신 나 올 듯하거나, 리모델링이 되어있는 산뜻한 도서관이라고 하여도 그 자료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필독, 권장, 인증, 매뉴얼 등의 딱지가 붙은 교과서의 참고사나 검열받은 듯한 자료들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경계한다.

학교도서관도 말 그대로 모든 인류역사의 도서관이 그러했듯이 학교문화를 수집 분석하여 널리 알리고 그런 도서관의 활동과 자료 속에 다양한 학교 문화 영역이 도서관의 자료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도서관에 수집 정리 해놓을 만한 문화자료와 행위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진흥의 관점에서 학교도서관운영을 접근하는 이런 시도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학교도서관 운영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내의 다양한 문화예술 일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의 도서관이 문화적 창조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자 공간임을 알리고 이용하도록 하여서 그들의 창조적 활동을 더욱 잘 실행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인 <문화예술창조지원>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 연구의 배경이 있다.

3. 문화예술적인 도서관운영의 필요성

학교의 도서관담당교사나 사서교사들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영역을 지원했다기보다 사실 문화예술 영역의 창조물로부터 오히려 많은 지원을 받았다.

도서관에 대한 이용지도를 교사나 학생들에게 진행하면서 <건축무한육면각체>나 <동감>이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또는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나 <러브레터> 등에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게임도 하고 놀 수 있는지를 편집하여 보여주면 긴 설명이 필요없이 학생들은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경험을 본 연구진의 교사들은 해보았다. 또 그런 영상에 영감을 받은 아이들이 <도서관이용권장홍보영상>이나 <도서관에티켓영상>을 똑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영상의 힘을 실감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 미술 교사의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고 그리면서 자화상을 정립하고 학생들이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도서관에서 전시도 하고 도서관의 장서로 등록하고 도서관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도 보게 하고 그러면서 후배들이 그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과 문화예술교육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내용을 풍부히 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또 수업시간 중에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충분히 소화하여 그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연극-간단한 촌극이지만-을 만들고 심지어 영상을 만들고 어설피지만 음향 효과와 소품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노래가사를 바꾸어서 도서관이나 책읽기와 연관시키는 아이들의 끼를 보면서 또 그런 과정을 다

른 어떤 수업보다 즐거워하면서 진행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화예술적인 도구와 방법들을 도서관 수업에 반영하고 보급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시인을 초청하고 연극인을 모시고 또는 만화가와 함께 관심 있는 친구들과 도서관문화강좌를 열었을 때 많은 관련 동아리 친구들이 도서관을 더 자주 드나들며 자신들의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았다. 때론 도서관에서 열었던 다양한 사진 전시회와 미술전시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전시 작품만이 아니라 도서관속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경험들이 문화예술적 활동과 도구들을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또 문화예술교육에 도서관이 도움을 주는 경험을 지난 도서관운영과정에서 도서관담당교사들은 이미 체험해왔다.

또한 선진국의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잘 보는 애니메이션인 <내친구 아서>를 통해 보면서 학교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음악회가 열리고 아이들이 현대음악과 고전음악을 비교해보는 모습을 보았다. 또 그 애니메이션에선 미술작가에 대한 탐구 수업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면서 도서관의 화보와 인터넷과 작가와의 직접 이메일 교환 등을 하면서 작품의 진수에 다가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도서관활용과 수업의 모습을 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보급하면 우리나라 도서관과 문화예술 교육이 서로를 밀받침해 주고 밀어주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4.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 사례

송곡여자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적인 요소들을 도입한 도서관 운영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는 송곡여고의 사서교사가 속한 단체인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한 분과 활동을 맡게 되어 진행된 것이다. 각 분과의 활동은 아래 나열한 분과들이 있었으며 송곡여고는 문화행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참고로 다른 학교들은 문화예술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요소들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것이었고 송곡여고는 음악발표회나 미술전시회 등을 직접 진행해보는 것이었기에 주로 행사 진행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참고로 다른 분과에서 진행한 내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가. 연극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화와 마찬가지로 연극장면 중 도서관이용교육에 활용할 만한 장면을 구성하여 이용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지만 무엇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본 책의 내용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연극으로 구성해서 발표해보도록 한다.

나. 영화를 활용한 도서관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 및 사서가 등장하는 영화나 도서관을 활용하여 일상의 문제나 사건을 해결해가는 영화를 편집하여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역사, 문화, 활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 미술수업과 결합한 도서관 활용수업 개발

미술 수업에 도서관자료가 적극 활용되는 방안을 개발하고 표현활동에서도 북아트 또는 그림책만들기 등 도서관 독서를 소재로 한 학생 표현 결과물을 시도해본다.

라. 음악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서관과 책을 소재로 한 음악을 발굴하고 일반 음악의 가사를 바꾸고 율동을 만들어서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잘 기억하게 한다. 나아가서 학생들 스스로 율동이나 가사를 만들어보도록 한다.

마.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설계안 개발

도서관속 미술관, 도서관 음악회, 도서관 전시회, 도서관 시낭송회 등이 가능하려면 학교도서관이란 작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해야 할지 그 모델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위원이 속한 한 도서관은 도서관활성화사업의 리모델링 사업을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안대로 진행한다.

바.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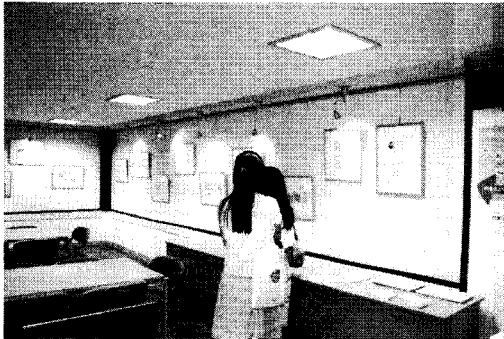
위에 실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된 학교도서관에서 실제로 여러 전시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를 실제로 개최하여 운영프로그램을 정리한다.

5. 송곡여고 도서관 리모델링에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마당

5.1 도서관 속 미술관

본교는 꾸준히 학교 축제기간동안 도서관 학생들의 여러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도서관 협력수업 특히 미술과와 협력해서 실시한 나의 인생 그림책 그리기 전시회 등을 도서관에서 진행해왔다. 특히 2005년에는 도서관에서 지역사회 미술학원의 지원과 자율적인 교사단체의 지원으로 미술전시회와 야생화전시회를 실시하였고 교육청 지원 연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

치료 도서에 대한 소개 전시회, 청소년 책임기운동본부 지원 사업으로 학생 독후작품 전시회 등을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 상설적인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훨씬 학생들이 편리하게 전시물을 볼 수 있고 전시 때마다 이젤을 설치하고 설치된 이젤로 인하여 도서관이 비좁아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도서관을 둘러보니 많은 벽이 그대로 깨끗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본교는 리모델링에 도서관의 벽면에 전시대와 조명 등 갤러리나 화랑에 설치된 간단한 전시도구를 설치하여 상설적인 전시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런 구상을 본교 교사들에게 이야기하자 여러 교사들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서 걱정이었던 전시공간 활용을 위한 콘텐츠도 걱정 없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미술작품 전시회



<그림 2> 벽 공간 활용

< 기획중인 도서관 전시회 >

번호	전시 주제	협력자, 전시물제공기관	비고
1	한국의 미 - 민속 공예품, 민속 생활 도구	중학교 교감 선생님, 미술선생님, 교사들	개인 수집물
2	세계 인형 전시회	전교사, 학부모	해외 출장 여행시 수집한 것
3	한국 야생화 전시회	사단법인 식물연구교사모임	
4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시회	송곡대학 만화영상과	대학 졸업작품 전시물 유치
5	그림책 원화 전시회	보리, 시공사	
6	독후화 전시회	송곡여고 학생들	미술협력수업 결과물
7	서예 작품 전시회	송곡여고 서예반	
8	시화전	중량구 문인협회	중량구 문화원 지원
9	학교 역사 사진 및 생활 사진전	송곡여고 사진반 및 전 교직원 및 졸업생까지도	
10	독도 사진전	독도지킴이	

5.2 음악회가 있는 도서관



〈그림 3〉 열린도서관 음악회 1



〈그림 4〉 열린도서관 음악회 2

본교는 2003년부터 도서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도서관 문화행사를 가져왔다. 한편 다양한 도서관 운영사례 중 도서관에서 콘서트나 실내음악회를 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또한 최근에 상영된 ebs 교육방송 <내친구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선 학교에서 음악가를 초청하여 도서관에서 음악회를 자연스럽게 갖는 장면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본교의 음악 전공반 학생들이 피아노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에도 피아노를 이동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음악가들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동료교사와 음악교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도서관에서 그런 장소만 마련해준다면 본인들도 나서시고 여러분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본교 해금동호회 교사들과 음악 전공반 학생들이 나서서 자신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또 졸업하여 더 뛰어난 음악가가 되어서라도 도서관에서 연주회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의 호응에 용기를 얻어 음악회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하고 이에 따른 시설 보완 장치를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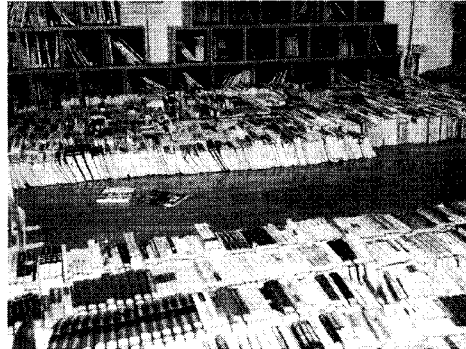
5.3 도서관 학생들의 북아트와 그림책슬라이드 공연

5.3.1 도서관 학생들 공연 일지

회차	시간	장소	대상	인원
1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송곡여자고등학교 대강당	송곡여자고등학교 1, 2학년 전교생	약 1,500명
2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	지역 주민	약 50명
3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	타학교 도서관	약 100명
4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	타학교 도서관	약 50명
5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중앙구립도서관	지역주민	약 200명
6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이들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약 50명
7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둘리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약 50명
8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북도서관	지역주민	약 80명
9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성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번처단원	약 200명

5.3.2 사진으로 보는 즐거운 도서관 활동

가) 책정리



나) 그림책 슬라이드 공연



다) 도서관 이벤트 중



라) 북아트 실습중



5.3.3 도서관 학생들의 소감문

가) 공연을 하고서. 2006.11.04 19:48

김한나 조회수 : 21 스크랩수 : 0 <http://club.cyworld.nate.com/50541756113/136934277>

요번공연을 하고 나서 나는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전에 아뜰어린이집에 아이들보다 더 집중을 잘해주어서 고맷웠다.
어린이집마다 분위기가 다른가보다. 그런것도 파악해야 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마이크가 부족했고 음향 조절에 미흡했었다.
큰 tv에 연결해서 얼마나 큰소리가 날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아뜰은 강당같은 곳이 있었는데 돌리는 어린이집 안에서

공연하는 거라 리허설을 실제처럼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사자가 파마를 했어요에서
여우아내를 맡았는데 말을 더듬은 점.
반성해야겠다. 한번 나온다고 연습에 소홀했었다.
다음번에는 잘해야 겠다.
그리고 공연을 할때마다 느끼지만 알렉스 역시 최고다
난 크고싶어 팀~ 정말 최고다.
그리고 알렉스 웬지 나랑 어울린다. ㅋㅋ

나) 북아트 후기. 2006.12.08 23:20

강사랑 조회수 : 19 스크랩수 : 0 <http://club.cyworld.nate.com/50541756113/138335476>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 학생 모두가 함께했던
북아트..
처음은 학교 축제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다들 흥미있어했고설명에 귀기울였기에 같이 즐길 수 있었다.
나보다 일년을 더하신 분이 나에게 '언니'라 부르며 열심히 만들었던일..
집에선 갈라지고 아프던 목이 학교에선 팔팔해서 소리소리질러가며 가르쳤던일..
학생에게 가르쳐보고 싶으시 다면서 종류별로 책을 만들어가시는 선생님..
모든게 재미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였다.
타도서관에서 학부모님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북아트를 했을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준비물이 모잘란다며, 자기 쪽은 보이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던 어머니들..
처음에는 나도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에 화가나고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웃음을띠고 말올해도 얼굴에 열이올랐고
설명을 듣지않고 만든 후에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도 같았다.
어린 자신의 아이가 '남들보다 덜 배워가거나 앓을까' 라는 생각에
준비물 하나에도 신경쓰면서 열심히 배워가시던 어머니들..
재밌겠다. 라는 눈으로 엄마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어린 아기들..

처음 순서로 들어오신분들에게서는 그저 책 만드는 순서를 외우기
 에 바빠 이런보습을 관찰할세가 없었다.
 두번째..세번째..
 회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붙어 조금씩 둘러보게 됐다.
 그럴때마다 들려오는 질타의 소리란.
 집에만 돌아오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었다.
 우선, 준비물의 문제. 학교에있던 가위와 칼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모자랐던 준비물들.
 둘째로는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의 만들기와 무리한 계획들.
 셋째로는 책을 만들 줄 아는 인원이 적었다는 것.
 조금씩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을 즈음.
 끝나버린 '나만의 책 만들기.'
 하는동안은 어서 끝나기 만을 기다렸지만
 막상 끝나고나기 아쉬움이 밀려왔다.

다) 송한나 조희수 : 18 스크랩수 : 0 <http://club.cyworld.nate.com/50541756113/137147523>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덕주쌤한테 재미없다고 깨지고나서 부터
 오기가 생긴건지는 모르겠지만 -_-;
 집에서 나름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맡게 된
 '난 크고 싶어'의 여러가지 역할들.(엄마,아빠,선생님,누나,누나친구,대니삼촌까지!)
 엔 그냥 북아트에나 심취하려던 생각이었는데
 그냥그냥 한번 해봐야지 라는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결국 구립도서관이랑 돌리어린이집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행사-라고 해도될까요?-가 무척이나 뜻 깊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서랑의 대외적 활동은 솔직히 게시하거나
 혹은 우리들끼리의 행동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혹은 초딩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나가고
 특히 북아트!! 할 때는 무척 힘들지만 나름의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그림책 슬라이드랑 북아트 계속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6.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6.1 도서관에서 무슨 문화예술 교육까지?

처음 도서관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계시키거나 서로 원활히 주고 받는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직까지 학교도서관이 그런 것까지 신경쓰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시기상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고민이 지금의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교육상황에서 적절한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리는 이미 해오고 있고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도서관은 존재자체로 문화예술교육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나 필요사항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일반화된 여러 가지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을 통해서 이미 해오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실 어떤 도서관이나 사서의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또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서관의 예술분야의 책들을 통해서 아니 꼭 예술이나 문학분야의 책들이 아니라도 아이들은 다른 모든 분야의 책속에서도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면서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할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로 도서관의 책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대출, 열람 서비스만으로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흔한예로 아이들이 미술시간이면 미술화보를 도서관에서 빌려갈 수 없냐고 하고 그림책, 문양집, 디자인도서 등을 보고가거나 스케치해가서 자신들의 그림을 창조하는데 도움받지 않는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음악적 감수성이 있는 학생이 도서관에 와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란 책을 빌려보고 감동되어 〈폭풍〉이란 작곡의 테마를 얻었다면 - 아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생과 문제는 도서관 운영자나 이용자가 이런 활동을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런 일상으로 놓아두느냐의 차이 일 뿐이다.

6.2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6.2.1 이미 하고 있지만 약속하고 만나는 만남을 위하여

도서관은 책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다는 인식과 리모델링과

설계에 도서관의 이런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계와 사회, 또 도서관 운영주체 스스로도 이런 개념과 마인드를 정리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6.2.2 사서의 존재와 문화기획자로서의 인식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과 영역확장은 도서관운영자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요구한다. 현재의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사서가 없고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담당교사로 존재하는 한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모습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최소한 학교에 사서교사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최대한 양보해서 계약직 사서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이어야 이런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 도서관이나 교육의 현실은 무엇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 소박하게 시작하고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사서는 정보의 중계자만이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중계하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임무도 든든한 도서관 자료와 환경을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6.2.3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강조점이 변화되는 서비스

학교도서관은 교육계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제로 주목받고 있고 적극적인 서비스개척으로 도서관계의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용자대상의 서비스를 학교라는 특수여건과 사서교사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개발해왔다. 정보활용교육, 도서관협력수업 등이 그러하고 요즘은 독서치료, 북아트 등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그러기에 그중에서도 최근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이 문화예술진흥원에 제안서를 내어서 채택된 <영화, 음악, 미술, 연극을 활용한 도서관이용지도 수업자료와 도서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란 주제는 의미가 있고 기초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에선 문화예술이라는 방향을 가져도 좋다고 본다.